

LOTTE DUTY FREE 롯데면세점

해외서 몸집 키우는 면세점 '빅2'

THE SHILLA duty free

# 국내최초 오세아니아로!

# 7000억 해외매출 달성



JR면세점 브리즈번 공항점

/롯데면세점

국내 면세점 주도권을 쥐고 있는 롯데면세점과 이를 바짝 뒤쫓고 있는 신라면세점이 해외 사업을 적극 확장하며 글로벌 시장점유율 경쟁에 나섰다. 치열한 국내 경쟁과 시장규제 탓에 국내에서는 외형 성장을 할 수 없다 판단한 롯데와 신라는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구매력이 높은 개별여행객과 동남아 관광객 등 다국적 고객을 구성하기 위함이다.

지난 상반기 롯데면세점의 해외사업은 전년 대비 60% 신장하며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일본 동경 시내점이 전년 대비 72% 신장하고, 베트남

면세사업을 성공적으로 오픈하여 흑자를 달성하는 등 상반기 해외점 매출이 970억 원을 기록해 올해 2000천억 원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면세점은 2012년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현재 일본 긴자와 간사이공항, 미국 광공항,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내, 태국 방콕 시내, 베트남 다낭공항, 나트랑캄란공항에 총 7개의 해외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베트남 다낭공항점을 개장한 데 이어 올해 6월엔 나트랑캄란공항점도 정식 개장하는 등 베트남 시장 진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 롯데면세점

2023년까지 최대 면세사업자로

## 신라면세점

올해 해외 매출 1조원 목표

여기에 지난달 말에는 호주 면세업체 'JR DUTY FREE'와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면세업계로는 최초로 오세아니아 지역에 진출하며 해외사업영역을 넓히게 됐다.

JR DUTY FREE는 오세아니아 6개 지점, 이스라엘 5개 지점을 운영 중이며, 2017년 기준 연매출 6900억 원을 기록했다. 이중 롯데면세점이 인수하게 된 매장 은 호주 4개 지점(브리즈번 공항점, 멜버른 시내점, 다윈 공항점, 캔버라 공항점), 뉴질랜드 1개 지점(웰링턴 공항점) 등 총 5개 지점이다. 호주 면세시장 규모가 꾸준히 성장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롯데면세점의 해외 매출 역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롯데면세점은 글로벌 면세점의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2023년까지 오세아니아 최대 면세사업자로 올라서겠다는 각오다.

신라면세점은 30년간 쌓아 온 노하우를 팔판삼아 해외 면세사업 확장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과 싱가포르 창이국제공



신라면세점 홍콩책략국공항점 그랜드오픈

/신라면세점

항, 홍콩 책략국 국제공항 등 아시아 3대 공항에서 모두 면세점을 운영하며 아시아 시장에서 최대 강자로 올라섰다. 3개 공항의 연간 이용객은 2억명 이상으로 신라면세점은 거대한 시장을 확보한 것이다.

신라면세점은 지난해 약 7000억원의 해외 매출액을 기록했으며, 해외 수익만 놓고 보면 국내 면세업계 1위다. 특히, 홍콩 책략국 국제공항점은 올해 1분기에 매출 942억원, 당기순이익 11억원으로 영업 첫 분기에 곧바로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올해는 해외 매출 1조원 시대를 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글로벌 면세전문지인 '무디리

포트'는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가 아시아 주요 허브공항의 화장품·향수 매장 운영권을 모두 확보했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호텔신라가 면세시장의 판도를 뒤집은 '게임 체인저'로 떠올랐다"고 평가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면세사업이 외부 영향을 많이 받는다. 사드 보복인 한한령의 영향으로 중국 고객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국내 면세 사업에만 치중하면 리스크가 따를 수밖에 없다"라며 "게다가 면세사업에 대한 규제도 심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성장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자동차 구입, 지금이 적기

**추석 맞이 쉐보레 Sales Festa**  
쉐보레의 풍성한 혜택과 함께 기분 좋은 한가위를 맞이하세요!

전 차종 총 4,000대 한정 최대 11% 할인

다뉴 스파크 (2000대 한정) <b>7% 할인</b>	다뉴 트랙스 (700대 한정) <b>8% 할인</b>	올뉴 말리부 (900대 한정) <b>11% 할인</b>
임팔라 (1500대 한정) 최대 <b>11% 할인</b>	이쿼녹스 (200대 한정) <b>200만원 할인</b>	올뉴 카마로 SS (50대 한정) <b>5% 할인</b>

### 쉐보레 최대 11%... 추석맞이 세일 폭탄

쉐보레가 9월 한 달간 선착순 4천명의 고객에 한해 최대 11%까지 할인을 제공하는 '추석맞이 쉐보레 세일 페스타'를 열고 할인 판매에 돌입한다.

2일 쉐보레에 따르면 스파크는 선착순 2000대 한정 7%(최대 140만원) 할인, 말리부는 900대 한정 11%(최대 430만원) 할인, 트랙스는 700대 한정 8%(최대 27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임팔라는 150대 한정 최대 11%(최대 520만원), 이쿼녹스는 200대 한정 200만원(최대 250만원), 카마로는 50대 한정 5%(250만원)를 할인한다.

이 밖에 9월부터 출고되는 트랙스 레드라인 에디션 구입 고객들에게는 보스(BOSE) 무선 이어폰을 기념품으로 제공한다.

한편 쉐보레는 지난 달 개별소비세 인하 방침에 발맞춰 시행했던 '7년 이상 노후차 교체지원' 정책을 '5년 이상 노후차 교체지원'으로 확대하며 스파크와 이쿼녹스에 30만원, 말리부와 트랙스에는 50만원의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

2013년 이후 신규 운전면허를 취득한 고객에게는 스파크 구입 시 30만원, 말리부와 트랙스 구입 시 50만원의 추가 할인을 지원하며 최근 태풍 및 침수 피해 차량을 보유한 고객에게는 추가 100만원을 할인한다.

/정연우기자 yw964@

### 르노삼성자동차

## 현금 구매뎀 500만원까지 할인

르노삼성자동차가 9월 한 달 간 신차 구매 고객들을 대상으로 가격 할인, 저금리 금융상품을 포함한 다양한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2일 르노삼성자동차에 따르면 QM3와 전기차 모델 구매 고객들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형 SUV QM3를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1년 이상 주행이 가능한 유류비 200만원을 지원하며 할부로 구매하면 36개월까지 0.9%의 이율로 이용 가능하다. 60개월 할부 시에도 2.9%의 낮은 금리가 적용돼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전기차 모델을 위한 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다. 국내 유일의 준중형 세단형 전기차 SM3 Z.E.를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500만원에 달하는 가격 할인을 제공한다. 할부 구매 시에는 기간에 따라 최소 무이자(36개월)부터 최대 2.9%(60개월)의 금리가 적용되며 250만원 할인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구매 고객에게는 약 30만원 상당의 측면 창문 옵션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현금 구매 시 50만원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개별소비세 인하여 추가혜택을 더한 기존 구매조건은 이번 달에도 유지된다. 기본적인 개별소비세 감면 외 ▲SM6(Taxi 트림 제외), QM6 40만원 ▲QM3, SM5 25만원 ▲SM3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여기에 5년 이상 경과한 노후차량 보유 고객 대상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2013년 8월 이전 등록된 차량 보유 고객들이 현재 르노삼성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델(전기차, 클리오 제외)을 구입하면 차종 별로 ▲SM6(Taxi 트림 제외), QM6, SM7(Taxi/Rent 트림 한정) 30만원 ▲QM3, SM5 25만원 ▲SM3 20만원을 지원한다.

/정연우 기자



SM6

/르노삼성 자동차

**기아자동차**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 이벤트

추가할인 **20%**

### 기아자동차

## 자영업자 고객 최대 158만원 할인

기아자동차가 소상공인·자영업자 고객을 위해 '힘내라 대한민국 캠페인'을 실시한다.

2일 기아자동차에 따르면 '힘내라 대한민국 캠페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기아차가 마련한 특별판촉행사로 9월 한 달 간 진행된다.

우선 기아차는 승용·RV 전 차종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20만원의 특별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8월 31일 기준 국내 영업 중인 개인 사업자에만 해당하며 카니발, 카렌스, 전기차(EV)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캠페인은 9월 기아자동차 한가위 페스타 특별혜택과 중복 적용이 가능한데 개인사업자 고객이 9월 모닝을 구매할 경우 최대 90만(한가위 페스타 70만+힘내라 대한민국 20만), K5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인하혜택을 포함해 최대 158만(한가위 페스타 80만+힘내라 대한민국 20만+개소세 인하혜택 최대 58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아차는 봉고 1t 트럭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초기 6개월 무이자 거치 할부가 가능한 '굿 스타트(Good Start) 특별할부'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예를 들어 봉고 초장축 캠퍼 렉서리 트림 1590만원을 36개월 할부로 구입할 경우 계약금 10만원을 제외한 할부원금 1580만원에 대해 초기 6개월간 무이자 거치 적용되고 이후 30개월간 4.5%의 금리를 적용 받아 매월 약 56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기아차 관계자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춰드리기 위해 '힘내라 대한민국 캠페인'을 기획하게 됐다"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고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드리기 위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